

문화점화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김정식* 송유진 이성수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한양대학교 선문대학교

자기평가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연구는 국가 간 비교나 개인수준의 문화차를 측정하여 고정적 문화특성에 주목을 한데 비해,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에서 실시한 두 개의 실험에서 단어재인과제를 통해 점화된 문화 조건 사이에서 자기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험 1은 자기보고방식에 의해 자기평가를 측정하였으며 실험 2는 인지적 과제를 주고 수행점수와 예상점수를 측정하여 자기평가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적 문화특성 뿐만 아니라 가변적 문화특성에 따라서도 자기평가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의 역동적 구성 이론을 지지하며 점화를 통해 도입된 상황적인 문화가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문화점화, 자기평가, 비교문화, 자기고양편향

서구심리학은 긍정적인 자기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라는 관점을 오랫동안 견지하였다 (Allport, 1955; Maslow, 1943; Rogers, 1951; Tesser, 1988). 이러한 동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고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표현하는 편향, 즉 자기고양편향을 보인다고 하였다(Colvin, Bloac, & Funder, 1995; Farh, Dobbins, & Cheng, 1991). 비록 이러한 편향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데는 오류일수 있지만 비현실적으로라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Baumeister, 1993; Taylor & Brown, 1988) 임상이나 상담 및 교육 같은 응용심리학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받았다(포괄적 개괄은 Heine

& Hamamura, 2007 참조).

비교문화 심리학에서 논쟁

그러나 최근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수행된 비교문화심리학 연구들은 자기평가에서의 고양편향이 문화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경향이 있어서 Sedikides, Gaertner와 Toguchi(2003)는 문화적 자기 관점(cultural-self perspective)과 자기고양전략 모형(self-concept enhancement tactician model)이라고 구분하였다. 전자의 흐름은 문화적 범주에 따라 자기고양의 일반적 양상이 있다는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Heine(2001), Heine과 Lehnman(1995, 1997), Heine과

* 교신저자 : 김정식,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516 High Street, Bellingham, WA 98826, USA; 전화 : 360-650-2590, E-mail : Jungsik.Kim@wwu.edu

Hamamura(2007), Heine, Lehman, Markus와 Kitayama (1999), 그리고 Kitayama, Markus, Matsumoto와 Norasakkunkit(1997)는 일본인들이 서구인들에 비해서 자기표현을 할 때 스스로를 낮추거나(self-effacement)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self-criticism)이 있음을 밝혔다. Heine과 Hamamura(2007)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조건이 아니어도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객관적 능력이나 잠재력이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타인보다 낮게 평가하는 비현실적 자기 비판편향도 발견된다고 하였다(Heine & Lehman, 1995). Farh, Dobbins와 Cheng(1991) 그리고 Xie, Roy와 Chen (1996) 등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들도 자기를 낮추어서 평가하는 자기겸양편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기비판 혹은 자기겸양 경향성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발견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혹은 때에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까지 하는 서구인들의 심리적 경향성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면서 자기 긍정적 행동을 보편적 행동이라고 간주한 서구심리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었다(Sedikides et al., 2003).

자기평가와 문화의 관계라는 문제에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인 자기고양책략 모형은 긍정적 자기 관심(positive self-regard)은 보편적이지만, 그러한 동기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책략에서 문화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다(예를 들어, Brown & Kobayahi, 2002, 2003; Sedikides et al., 2003). 자기고양책략 모형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Heine이나 Kitayama 등의 연구들이 자기평가의 문화적 차이를 밝힘으로써 서구심리학이 보여주었던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양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기고양책략 모형은 a)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자기고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b) 상황적 맥락이 주요한 설명변수인 문화심리학적 접근에 비추어 볼 때 자기비판경향성은 고정적 문화특성에 주안을 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이며, 따라서 c) 자기고양행동이 단순히 문화결정론적인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자기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먼저, 자기고양편향이 동아시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자기고양책략 모형 연구자들은 자기고

양편향이 동아시아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거나 다양한 상황적 조건에 따라 서구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기고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Brown & Kobayashi, 2003; Kobayashi & Brwon, 2003; Sedikides 등, 2003), Heine이나 Kitayama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에서도 개인에게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는 자기고양효과가 나타난다. Brown과 Kobayshi(2003)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문화적 가치와 관련지어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는 일본인들도 자기고양편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Kurman(2001)도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조공호(2002)와 조공호와 명정환(2001)은 이 문제에 관해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소위 '문화우월적 특성'(예 : 타인에 대한 배려성)에 대하여는 '집단중심 성향자'도 자기의 긍정적 독특성을 과대지각하면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본적 귀인오류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기고양편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듯이 최근의 연구들의 초점은 자기고양편향이 일관되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상황적 변인에 대한 고려의 부족과 관련 있다고 본다. 이미 여러 연구들이 상황적 맥락에 따라 자기고양편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Kim, Kim, Kam과 Shin(2003)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세 가지 양상의 자기표현인 허세, 긍정적 자기표현, 부정적 자기표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을 때 허세 행동 수준에서는 관계적 자기해석자(interdependent self-construal)가 독립적 자기해석자(independent self-construal)보다 낮았지만, 긍정적 자기표현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자만큼 관계적 자기해석자도 높았으며, 부정적 자기표현에서는 두 성향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Takata(2003)는 일본인들은 자기와 친밀한 타인보다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경쟁상황에서는 자기고양편향을 보인다고 하여 자기고양은 여전히 나타나지만 개인-집단주의 문화 특성과 자기고양편향의 발현 양상 사이의 관계는 내집단의 경계와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는 자기평

가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의 여부도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보인다. Kobayashi와 Greenwald (2003)는 명시적 측정도구(explicit measure)를 통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자기고양편향에서 문화차이가 나타나지만, 암묵적 측정도구(implicit measure)를 사용할 때는 문화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Muramoto (2003)는 집단주의 사회의 개인들은 자기긍정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자기를 고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의 실패나 성공에 대해서 이기적(self-serving) 귀인을 하지는 않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귀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Kim, Gim과 Lee(2007)는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장기적이고 밀접한 대인접촉을 예상하는 조건에서는 겸양적으로 자기평가를 하지만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대인접촉을 예상할 때는 서구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고양의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장기적이고 밀접한 대인접촉의 조건에서는 관계 초기에 상대적으로 겸양적 태도를 보여 사회적으로 성숙된 인격을 가졌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사회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장기적인 대인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사회성과 개인적 우월성을 모두 인정받으려고 하는 복잡한 방식의 자기인상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자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자 하는 것은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자기평가의 동기요인이며 자기평가에서 나타나는 비교문화적 차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을 보인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자기고양편향은 단기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로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과도 일치한다(Robins & Beer, 2001).

무엇보다 비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는 동북 아시안인들이 자기를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의 심리적 기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견이다. 먼저 Heine(2001)은 Markus와 Kitayama(1991) 및 Kitayama와 Uchida(1999)가 주장한 집단주의-개인주의 혹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관계적 자기 대 독립적 자기라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달하는 성격구성체와 관련을 짓는다. 이들은 동아시아

에서 발견되는 집단주의는 개인의 목표와 안녕보다는 집단의 안녕과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의 긍정적 특성을 표현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집단의 이익이나 전체의 긍정적 평가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경향성이 세대를 이어서 사회화되고 개인 속에서 내면화되어 결국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결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관점의 반대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이들의 주장이 오히려 오리엔탈리즘적인 해석일수 있다고 비판을 한다. Heine 등(1999)은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긍정적 자기관심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는 증거가 거의 없으며 자기 비판적 관심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특성임을 보인다(p.766)”고 언급함으로써 일본인들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평가가 겸양과는 다른 것으로 분명히 일본인들은 긍정적 자기관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Sedikides, Gregg, & Hart, 2007). 그러나 동양문화에서 나타나는 겸양(modesty)은 中庸에 가까운 태도로서 결코 극단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중심이 가장 적절한 중간(optimal middle)에 있는 것이다. 즉 겸양은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재단하여 드러냄에 개념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Heine 등(1999)이 주장하는 낮은 수준에서의 자기평가 그리고 긍정적 자기 동기의 결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Sedikides et al., 2007). 이러한 해석의 맥락에서 Sedikides 등(2003)은 겸양성이 통제되었을 때 자기고양편향의 정도가 유의하게 줄어들거나 사라짐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비판과 겸양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고양편향 대신 자기은폐(self-effacing)나 자기비하(self-derogation)같은 겸양편향이 일반적인 사회비교의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조궁호, 김소연, 1998, p.170)와 같은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동양사회의 전통적인 덕목인 겸양과 자기비판은 혼동되어 소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Heine 등(1999)의 관점에 선다면 이는 동아시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혹은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보는 것으로 동아시아들이 서구인들에 비해 마치 피학적(masochism)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한 위험한 가설이며 이는 겸양이라는 복잡한 가치와 행동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오리엔탈리즘적인 해석

일수 있다.

결국 여러 연구들(Brown & Kobayashi, 2003; Kim et al., 2003; Kim et. al., 2007; Kobayashi & Brown, 2003; Sedikides, Gaertner, & Vevea, 2005)이 지적하는 것은 서구심리학에서 견지했던 자기고양편향의 문화적 보편성을 다시 확인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자기겸양편향의 동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다. 즉 이들은 동아시아인들은 행동수준에서 서구인들과 달리 자기고양 경향이 낮게 나올 수 있지만 이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이면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구문화에서 나타나는 자기고양경향성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Heine 등(1999), Heine과 Hamamura(2007)나 Kitayama 등(1997) 등과 다른 점은 문화가 고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처한 개인이 해석하는 판단에 의해 가장 우호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자기표현과 평가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문화가 갖는 보편성이라고 보는데 있다.

Matsumoto(1999)는 문화심리학의 연구방법을 소개하면서 문화는 역사, 생태, 종교 등의 종합 패키지이면서 문화차에서 드러나는 행동차이의 이면에는 이러한 변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문화는 문화단위(국가, 민족, 혹은 특정 지역)에서 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지에 대한 일종의 가설적 대표변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Heine 등(1999)의 연구방식에서 나타나듯 특정 변인에서의 단순한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예 : 캐나다인에 비해 일본인들의 자기평가치가 낮은 것)을 아무리 많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문화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정한 관련성(예 : 동아시아에서의 자기고양의 결여)을 밝힐 수 없으며 단순히 집단 간 문화 차의 이면에 있는 문화하부 변인들과 초점이 되는 행동 간에 일어나는 관계성(예 : 문화우월변인에 대한 자기고양)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여야 비로소 문화와 행동의 관계성이 체계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내적 변인에 대한 고려는 복잡한 문화의 접견지대에 살고 있거나 문화의 변동을 경험하는 사회의 개인들을 설명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 Triandis(1989)가 주장하듯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나고 자라더라도 개인은 집단주의적 문화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개

인주의적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문화 집단 간 비교는 그러한 개인수준에서의 문화적 성향을 간과할 위험이 많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평가가 문화에 의해 다르게 재단되어 표현되는 것이라는 이론적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문화차를 가져올 수 있는 문화 내적 변인들을 가능한 많이 고려해 보아야 하며 우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상황적 변수에 대한 고려의 확대가 해당의 열쇠라고 본다.

요약하면 자기고양에 대한 책략적 모형은 자기평가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개인이 지각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가장 최대의 심리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즉, 문화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역할은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고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맥락을 제시해 줄 뿐이다. 만일 문화가 가변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 자기평가가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개인이 원래 소속된 문화가 아니라 주어진 문화의 맥락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기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가 요구되는지를 개인이 주체적으로 해석한 결과로서 자기평가가 표현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변인 : 문화점화와 자기평가

최근 문화심리학에 관심을 끌고 있는 문화점화(culture priming)에 대한 이론은 자기평가와 문화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에 관해서 상황적 맥락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유익한 도구를 제공한다. 점화효과(priming effect)란 특정한 정서나 기억과 관련된 정보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 정보가 자극을 받으면 관련된 기억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Hong, Morris, Chiu와 Martinez(2000)는 점화의 개념을 문화에 응용하여 문화적 상징물을 이용한 자극을 통해 피험자들의 사고 패턴과 행동 표현이 자극물의 문화적 상징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고 및 행동 패턴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중국계 미국인에게 미국의 국기를 보여주거나 천안문 광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일련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록 하였더니 미국의 국기를 본 피험자들은 과제수행에
서 대상에 주로 주목하고 설명하는 전형적 개인주의적
사고와 행동양태를 보였고 천안문 광장을 본 피험자들
은 대상의 배경과 대상과 배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하
는 집단주의적인 사고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후 일련
의 연구들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실험을 한 결과 일관
된 발견을 하였다(Wong & Hong, 2005). 따라서 Hong
등(2000)과 Kashima(2001)는 문화란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생산되고 나누고 다시 재생산하는
공유지식의 인지적 네트워크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어떤 문화의 속성이 인지적으
로 활성화되는가에 따라 가변적으로 인간행동에 다르게
작용하며 결국 표현된 행동의 문화적 특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심리학의 연구에서 점화이론이 가지는 시사점은
문화가 인지적 구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의 고정된 문화의 준거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문화인지구조
를 가질 수 있어서 하나 이상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다양한 행동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오랫동안 외
국 생활을 한 사람들이 모국어로 말할 때와 외국어로 말
할 때 다른 표정이나 चे스처를 자기도 모르게 쓰는 것처
럼 한 문화가 인지적 준거체계로 작용을 하면 그 문화에
서 기대되는 행동, 감정, 생각들이 일관적으로 활성화된
다는 원리이다. 문화가 고정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관점은 지난 20년 이상 문화심리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이러한 문화적 자기 관점의 대표는 Triandis(1989)
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Markus와 Kitayama(1991)의
독립적-관계적 자기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가 계속해
서 변화한다는 점, 일정기간 동안 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개별적 발달 역사가 다르다는 점, 상황마다 조금
씩 다른 문화적 맥락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문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역동적 영향에 대하여 만족스러
운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Hong & Mallorie,
2004). 따라서 점화기법을 통한 문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은 점점 많은 학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자기평
가의 연구에서도 점화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조공호,
2003; Hong & Mallorie, 2004; Hong, Wan, No, & Chiu,
2007).

본 연구와 가설

이상 비교문화 연구에서 드러난 일관적이지 않은 자기
비판-고양 편향에 대하여 상황적 변인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문화의 점화와 자기평가의 관
계성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설계되었다.

문화에 대한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은 Hong, Benet-
Martinez, Chiu와 Morris(2003) 및 Hong과 Mallorie(2004)
의 문화의 역동적 구성이론(Dynamic Constructivist Theory
of Culture)의 견해를 따라서 문화가 고정되어 있지 않
으며 상황적으로 활성화되는 인지적 구조라고 보며 문화가
점화되었을 때 개인행동의 외적인 표현은 기준시점에서
활성화된 문화적 단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즉 개인은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한 원문화에 영
향을 받겠지만 구체적인 특정 시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활
성화되는 규범과 가치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일 문화를 점화하였을 때, 점화된
문화적 맥락 속에 있는 개인의 자기평가가 달라진다면
이는 자기평가가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작용하는 원문화
적 특성에 대해서만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을 구체적인 가설로서 표현하면, 자기평가
는 문화의 점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문화가 독
립적 자기로 점화된 조건에서 관계적 자기로 점화된 조건
보다 더 긍정적 자기평가가 나타날 것이며 점화조건에 따
른 자기평가의 차이는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가설은 문화점화이론이 자기평
가의 맥락에서도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다. 문화점화의
기존 연구들은 점화되는 문화의 특성에 따라 피험자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았다(Hong, Benet-Martinez et
al., 2003; Hong & Mallorie, 2004). 예를 들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도 개인주의가 점화되면 초점 대상을 중심으
로 지각하며 집단주의가 점화되면 배경이나 주변과의 관
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ng, Morris et al., 2000). 만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
정적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무시한다면 자기평가의
경향성은 조작된 문화의 준거체계에 관련을 가질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
서 각각 두 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실험에서 모두

문화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접화한 후 미국과 한국의 피험자들의 자기평가 수준을 측정하였다. 두 실험의 차이점은 실험 1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종속변인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2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실제로 수행결과와 수행에 대하여 대상자들이 갖는 예상 수행치를 비교함으로써 문화의 접화와 자기평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실험을 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 자기고양편향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권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며 자기비판적 경향성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Heine & Hamamura, 2007;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7) 기존의 연구와 가능한 가까운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실험 1

실험대상

한국의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생(89명)과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대학교의 학생(118명)이 실험 1에 참여하였다. 두 대학교는 학생 수(한국 수도권 소재 대학교 - 9,530명; 미국 북서부 소재 대학교-약 12,000 명; 각각 2006 년 현재)나 대도시와의 거리와 같은 입지조건에서 유사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들의 연령은 미국표본의 경우 21.16세($SD=3.98$)이고 한국표본의 경우 22.37세($SD=1.97$)였다. 성비는 두 표본 모두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미국 : 남자=64명, 54.2%; 여자=54명, 45.8%; 한국 : 남자=49명 55.1%; 여자=40명, 44.9%). 피험자들은 심리학 수업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미국의 피험자들은 실험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의 학과점수를 받았으며 한국의 피험자들은 따로 추가점수를 받지 않았다.

실험절차 및 측정도구

실험은 심리학수업의 실험시간(lab session)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피험자들은 두 개의 문화접화조건에 무선허당되었다. 미국학생들은 학생증의 일련번호의 끝자리에 따라서, 개인주의 조건($n=58$)과 집단주의 조건($n=60$)에, 그리고 한국학생들은 생일의 홀짝수에 따라서 실험조건에(개인주의 조건, $n=45$; 집단주의 조건, $n=44$)에 할당

되었다. 실험은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피험자들에게는 실험의 목적이 특정한 단어들이 갖는 이미지와 성격 간의 관계라고 하였으며 단어인지 과제와 성격측정을 위한 문항이 포함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은 실험동의서에 사인을 한 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질문지를 받았다. 실험은 3단계로 수행되었는데, 먼저 첫 단계에서 피험자들은 문화를 접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목록에 단어의 이미지를 평정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다른 단어목록의 단어를 재인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고안된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할당된 접화조건에 따라 각 피험자들은 A(개인주의 조건) 와 B(집단주의 조건)로 구분된 다른 질문지를 받았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접화조건에 따라 포함된 단어인지 과제가 달랐으며 자기평가의 항목은 공통적이었다. 실험조건을 중립화하기 위한 다른 처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강의내용의 맥락에 의한 간접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업이 시작되고 바로 출석을 확인한 후 피험자들이 즉각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실험시간은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실험 후 연구의 실제 목적과 가설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주어졌다.

문화접화

문화를 접화하기 위하여 Brewer와 Gardner(1996)가 개발한 단어재인방식을 응용하였다. 이들은 피험자들에게 문화적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짧은 이야기가 있는 시나리오를 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을 주의 깊게 읽고 대명사를 골라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독립적 자기를 접화하는 시나리오는 문장내의 모든 대명사가 자기를 나타내는 'I', 'me', 'myself'와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관계적 자기를 접화하는 시나리오는 'we', 'our', 'ourselves'와 같은 집단의 소속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실험피험자들이 각각의 대명사를 찾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각 단어가 관련된 인지적 사고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구조상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국어는 흔히 문장에서 주어와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실험집단에게 같은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경우 두 언어로 만들어진 시나리오에서 대명사의 숫자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명사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역하는 경우

표현이 자연스럽게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단어재인기법이 갖는 이론적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고 번역의 단점을 피하기 위하여 이야기가 담긴 시나리오 대신 문화적 특성을 함축하는 여러 개의 단어를 읽고 재인하는 과제를 만듦으로서 원래의 조작방식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은 먼저 문화특성과 관련이 있는 20개의 단어들에 포함된 단어목록을 주의깊게 읽도록 요구받았다. 예를 들어 독립적 자기 점화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개인주의적 문화특성과 관련 있는 20개의 단어(예: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생활)들이 포함된 단어목록이 주어졌다. 단어목록을 읽을 때 피험자들은 각각의 단어가 '따뜻한' 혹은 '차가운' 차원에서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속성평정과제는 피험자가 각 단어에 몰입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졌으며 본 연구의 주 분석과는 관련이 없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피험자들은 단어의 재인과제를 수행

하였다. 이 과제를 위해 새로운 단어목록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단어목록도 똑같이 20개의 단어를 포함하는데 두 번째 단어목록은 의미상 유사하지만 첫 번째 단어목록에 없는 단어가 5개가 포함되었다. 피험자들의 과제는 두 목록이 같은 단어를 포함하는지, 어떤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골라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5개를 제외한 15개의 단어들은 모두 독립적 자기를 함축하는 단어들이므로 이 재인과제는 피험자들이 단어를 되풀이 하여 보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집단주의 점화조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단어목록이 집단주의 문화의 관계적 자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포함한다는 점만 달랐다(예: 동료, 일치, 친척, 통일, 가족, 공동체 등).

두 개의 단어목록은 선행연구를 통해 만들어졌다. 선행 연구에서 두 개의 단어목록에서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가 동시에 같은 의미를 추출하도록, 동의어 사전을 통해서 집단과 개인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68개의 단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22명의 미국대학생들과 15명의 한국 대학

표 1. 문화점화를 위해서 사용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연상단어 목록

개인주의 점화단어		전형성 평정치	집단주의 점화단어		전형성 평정치
영어	한국어	M(SD)	영어	한국어	M(SD)
Single	독 신	1.13(.43)	Group	집 단	5.93(.25)
Self-interest	자기중심	1.36(.61)	Collective	집합적인	5.76(.62)
Personal	개인적인	1.40(.72)	Team	팀	5.53(.57)
Egoistic	이기적인	1.43(.62)	Public	공 공 의	5.50(.77)
Lonely	외 로 운	1.46(1.02)	Teamwork	팀 위 크	5.50(.86)
Alone	홀 로	1.50(1.27)	Nation	국 가	5.50(.82)
Privacy	사 생 활	1.56(1.04)	Community	공 동 체	5.46(.77)
Independence	독 립	1.63(1.15)	Family	가 족	5.26(1.01)
Original	독창적인	1.63(1.09)	Tradition	전 통	5.26(.73)
Concentration	집 중	1.66(.47)	Common	공 통 된	5.16(.98)
Uniqueness	개성있는	1.89(1.29)	Conformity	동 조	5.13(1.38)
Self-respect	자기존중	1.90(1.21)	Unification	통 일	5.10(1.29)
Self-esteem	자 존 감	1.96(1.24)	Consensus	합 의	5.06(1.46)
Initiative	솔선수범	2.16(1.01)	Relatives	친 척	5.06(1.08)
Defy	반항하다	2.16(1.31)	Company	동 료	5.03(.99)
Resistance	저 항	2.36(1.21)	Union	연 합	4.93(1.33)
Creativity	창 조 성	2.63(1.67)	Federation	연 방	4.91(1.27)
Freedom	자 유	2.76(1.75)	Harmony	조 화	4.90(1.21)
Opposition	반 대	2.86(1.56)	Support	지 지	4.86(1.04)
Leader	지 도 자	2.96(1.73)	Alliance	동 맹	4.83(.98)

주 : 1. 개인-집단 전형성 은 7점 단일척도로 측정(1=개인을 연상, 7=집단을 연상)

2. N=37

생들이 이 각 단어의 개인-집단 전형성을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형성이 높은 단어들 중에서 번역에 무리가 없고 집단-개인 전형성의 평정치가 양쪽 언어조건에서 모두 높은 값을 갖는 단어를 각각 20개씩을 선정하였다. 표 1은 사용된 목록의 단어와 그 단어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 전형성의 평가치를 보여준다. 점화과제를 수행하는데 약 10 분 정도가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기평가의 측정

종속변인인 자기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Xie 등(2006)이 개발한 자기고양 경향성 척도(Self-Enhancement Propensity : SEP)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도취적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Terry, 1988)에서 고른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4문항의 우월성("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모두들 내가 훌륭하다고 하며 나도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칭찬을 받기를 좋아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과 4문항의 현시성(예 : "나는 기회가 되면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들과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날 몰라주면 화가 난다", "관심의 중심이고 싶다")이라는 두 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으로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7)를 사용했다. 내적 타당도(Cronbach alpha)는 우월성척도는 .81(한국) 및 .83(미국)

이었고 현시성 척도는 .85(한국) 및 .79(미국)이었다.

측정도구의 번역

문화점화를 위한 단어목록과 자기평가의 측정도구의 번역은 모두 두 명의 이중 언어자가 수행하여 한명은 영어로 된 척도를 한국어로 옮기고 다른 한명은 이 번역판을 다시 영어로 옮겨 원래 영어버전과 의미의 일치성을 비교하는 역번역(back-translation) 과정을 거쳤다.

결 과

국가변인과 점화조건변인 각각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먼저 첫 번째 종속변인인 우월성에 대해서 국가(한국, 미국)×점화조건(개인주의, 집단주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안된 가설은 문화의 점화조건에 따라 자기평가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국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두 변인들의 주요인을 모두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점화조건은 주효과를 보였다, $F(1, 203)=16.74$, $p<.001$. 예상대로 개인주의로 점화된 실험조건에서 우월성의 자기평가가 높았다(개인주의 조건 : $M=5.06$, $SD=1.50$; 집단주의 조건 : $M=4.20$, $SD=1.54$). 국가변인의 주효과도 발견되었으며, $F(1, 203)=12.42$, $p<.01$, 미국 피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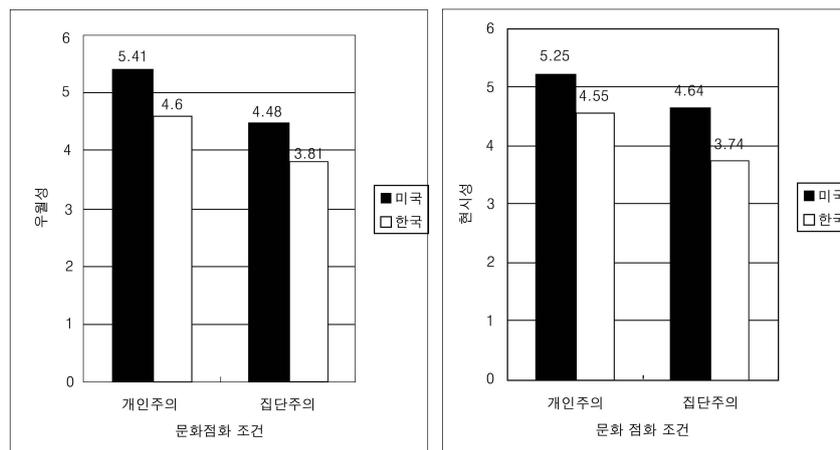


그림 1. 문화 점화조건 별 우월성과 현시성에서 자기평가

자들의 자기평가($M=4.93$, $SD=1.65$)가 한국피험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4.21$, $SD=1.39$). 점화조건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F(1, 202)=.13$, $p=.72$. 이것은 점화조건별 차이가 두 국가의 표본에서 모두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월성에 대해서 제안된 가설은 지지되었다.

두 번째 종속변인인 현시성에 대한 변량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우선 점화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했으며, $F(1, 203)=11.31$, $p<.01$, 개인주의 조건에서 현시성이 더 높았다(개인주의 : $M=4.94$, $SD=1.50$; 집단주의 : $M=4.25$, $SD=1.16$). 국가에 의한 주효과도 유의하였고, $F(1, 207)=14.41$, $p<.001$, 미국피험자들의 현시성이 더 높았다(미국 : $M=4.94$, $SD=1.57$; 한국 : $M=4.15$, $SD=1.48$). 현시성에서도 국가와 점화조건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203)=.19$, $p=.66$.

따라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시성에 대하여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림 1은 우월성과 현시성 두 종속변인에 대하여 두 국가별로 점화조건 사이에 자기평가의 차이가 다른지를 보여준다.

실험 2

실험1은 점화조건에 따른 자기평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자기보고방식을 사용하였다. 자기평가나 자기표현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실험1처럼 자기보고에 의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기보고에 의한 방식은 비교문화연구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두 국가의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커트 척도에 의한 점수는 준거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Heine, Lehman, Peng, & Greenholz, 2002). 그래서 비교문화심리학자들(Biernat, Manis, & Nelson, 1991; Peng, Nisbett, & Wong, 1997)은 객관적 측정치와 자기보고에 의한 측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보고방식의 측정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 2에서는 피험자들이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실제점수와 피험자들이 예측한 자기의 점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점수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좀 더 배제하고자 하였다. 실험2의 검증 가설은 실험1과 같았다.

실험대상

실험1에서 자료를 수집한 대학교의 미국 대학생 78명과 한국 대학생 86명이 실험2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의 평균 나이는 미국이 20.66세($SD=2.24$)였고 한국이 21.93세($SD=2.24$)였다. 실험 2는 저학년 수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실험 1에 비해 연령평균이 조금 낮았다. 성별 분포는 미국표본은 여자가 많았고(남자 : 30명, 38%; 여자 : 48명, 62%) 한국표본은 남자가 조금 더 많았다(남자 : 45명, 52%; 여자 : 41명, 48%).

실험절차 및 측정도구

연구대상자들은 실험 1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조건에 무선했던 후 먼저 논리적 추론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미국인 피험자들은 학생증의 일련번호의 홀짝수에 따라 개인주의 조건에 38명, 집단주의 조건에 40명이 할당되었으며 한국인 피험자들은 생일의 홀짝수에 따라 개인주의에 46명, 집단주의 조건에 40명이 할당되었다. 다음으로 문화를 점화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추론과제의 수행에 대한 피험자들의 점수를 세 가지 차원(실제 점수, 예상 점수, 예상 등수)에서 측정하였다. 실험1 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피험자들은 학생증의 일련번호(미국피험자)와 생일의 홀짝수(한국피험자)를 통해서 두 조건에 할당되었다.

문화점화

실험 2에서 문화점화는 실험 1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이미지 평정 및 재인과제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인지적 과제수행

피험자들은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 검사에서 추출한 논리적 추론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검사는 미국의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서 난이도가 대단히 높으며 특히 한 지문 당 7개 정도의 문제가 제출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렵도록 고안되어 있다. 실제로 수행한 점수와 자신이 확신하는 점수와의 차이가 비교적 큰 검사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대개 정답자가 적으므로 연구의 목적상 본인의 점수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외하고 지문 당 각 5개씩 총 10개의 문제를 만들어서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원래의 검사에서는 25문항에 대해 25분 동안 풀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이전에 GRE를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0 문항의 문제에 대해 20분을 주었다. 일반인들에게 이 검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과제의 예문을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자기평가의 측정

자기평가를 세 가지 점수로 측정하였다. 먼저 논리적 추론 과제에 대한 피험자들의 실제 점수를 계산하였다(실제점수). 두 번째로 피험자들로 하여금 과제 수행 후 10문항에 대하여 몇 문제나 정확한 맞추었는지를 물어서 예상 점수를 측정하였다(예상점수 : 최대 10점). 마지막으로 피험자들로 하여금 같은 과제를 수행한 100명 중 본인의 점수가 상위 몇 등 정도 될 것인지 예상하도록 하였다(비교 등수 범위 : 1-100).

결 과

표 2는 각각의 점수(실제 점수, 예상 점수, 상대적 예상 등수)별로 두 점화조건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예상과 같이 실제점수에서는 점화조건 주효과가 없었다, $F(1, 160)=1.05, p=.31$; 개인주의 : $M=3.71, SD=1.12$, 집단주의 : $M=3.77, SD=1.41$. 국가 간 차이에 의한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F(1, 160)=.76, p=.41$; 미국 : $M=3.66, SD=1.22$; 한국 : $M=3.87, SD=1.37$.

그러나 예상점수에서는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 조건($M=5.79, SD=1.27$)의 피험자들이 집단주의 조건($M=5.01, SD=1.07$)의 피험자들보다 논리적 추론과제의 점수를 높게 예상하였다, $F(1, 160)=21.48, p<.001$. 국가 간 차이도 유의하였으나, $F(1, 160)=11.92, p<.001$,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160)=.84, p=.36$.

다른 사람과 수행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예상등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2요인 변량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점화조건에 의한 주효과만 유의하고, $F(1, 160)=18.96, p<.001$; 개인주의 : $M=37.97, SD=11.75$; 집단주의, $M=46.22, SD=12.36$, 국가조건에 의한 주효과와 상호

표 2. 문화의 점화조건에 따른 논리적 추론과제의 실제점수, 예상 점수 및 예상등수 비교

	점화 조건					
	개인주의			집단주의		
	전체	미국	한국	전체	미국	한국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실제점수	3.77 (1.21)	3.76 (1.17)	3.78 (1.24)	3.77 (1.41)	3.57 (1.27)	3.97 (1.51)
예상점수	5.79 (1.27)	6.1 (1.25)	5.43 (1.18)	5.01 (1.05)	5.22 (1.07)	4.77 (.99)
예상등수	37.971 (11.75)	38.28 (12.78)	37.71 (9.50)	46.22 (12.36)	48.10 (12.34)	44.35 (1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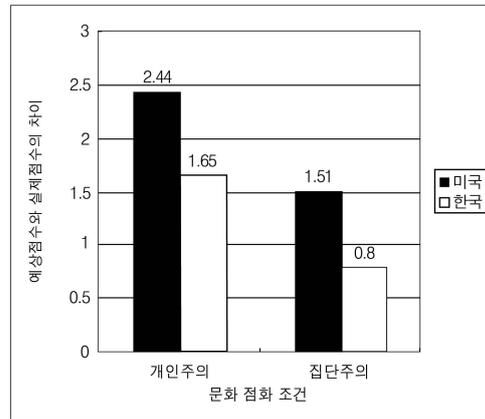


그림 2. 인지과제에서 예상점수와 실제점수의 차이값의 문화 점화조건 간 비교

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국가에 의한 주효과, $F(1, 160)=1.31, p=.25$; 한국 : $M=40.80, SD=13.42$, 미국 : $M=43.43, SD=11.98$; 상호작용 효과, $F(1, 160)=.70, p=.40$.

실제점수와 예상점수와의 차이가 클수록 비현실적으로 자기고양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상-실제점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한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결과는 점화조건에 의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160)=11.82, p<.001$.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개인주의 조건($M=2.01, SD=.46$)에서 집단주의 조건($M=1.22, SD=.69$)보다 예상-실제점수 간 차이가 높았다. 이 결과는 개인주의 점화조건에서 인지적 과제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가 더 과

장되게 지각됨을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F(1, 160)=11.76, p<.001$; 한국 : $M=1.25, SD=.40$; 미국 $M=2.03, SD=.47$, 국가와 점화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16)=.13, p=.6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은 실험2에서도 지지되었다. 그림 2는 문화의 점화조건 간 실제점수와 예상점수와의 차이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평가가 문화의 점화조건에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험 1은 자기평가를 자기보고방식으로 측정하여 점화된 문화조건에 따라 자기평가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고, 실험 2는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실제 수행정도와 수행의 예상치 사이의 차이에서 점화된 문화조건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제안된 가설이 두 실험에서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문화를 고정적 특성으로 보고 자기평가의 차이를 본 것에 비해 본 연구의 가설은 문화를 점화함으로써 자기평가가 점화된 상황적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정적 문화특성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 국가변인에 관계없이 자기평가는 개인주의로 점화된 실험조건에서 집단주의로 점화된 실험조건에 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문화 점화조건 사이에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두 국가의 피험자들 모두 각각 문화를 점화함에 따라 자기평가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실험1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피험자들의 경우 원문화가 집단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로 문화특성이 점화되었을 때 자기평가는 전체 평균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미국피험자들의 경우에도 원문화가 개인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로 문화가 점화되었을 때 자기평가는 평균보다 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문화와 점화된 문화가 같은 경우는 자기평가가 가장 증폭되어 나타났다. 개인주의로 점화된 실험조건인 미국피험자 집단에서 자기평가가 가장 높았고 집단주의로 점화된 한국피험자 집단은 자기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원문화와 점화된 문화가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

로 볼 수 있는 집단주의 점화조건인 미국피험자들과 개인주의 점화조건인 한국피험자들에서는 자기평가가 전체에서 중간치 정도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설검증 결과는 자기평가가 고정된 문화특성인 원문화에 한해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점화를 통한 일시적 문화특성의 활성화에 의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이것은 점화에 의해 활성화된 문화특성이 고정적인 문화특성보다도 더 큰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안된 가설은 지지되었지만 이에 관한 이론적 해석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국가 간 자기평가의 점수에서 주효과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점화조건에 따라 두 국가의 피험자들에게서 일관되게 자기평가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체적인 자기평가점수는 한국인 피험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점은 본 연구의 결과가 행동수준에서만 관찰하면 자기평가가 동아시아에서 낮게 나타난다고 보는 Heine과 Hamamura(2007) 그리고 Kitayama와 Uchida(1999)의 주장과 유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 간 차이와 점화조건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점에서 본 논문은 이들의 주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것을 제안한다. 이들 학자들의 주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자기평가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서구문화권에서 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 둘째로, 그 이유를 개인의 긍정적 자기평가를 낮추고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봄으로서 더 발전하기 위한 자기수양을 지향하려고 하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이 주장의 첫 번째 부분은 행동수준의 관찰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일련의 연구가 실험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면 동기가 어떠한 간에 동아시아에서 자기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국가 간 차이가 유의한 본 연구의 결과도 행동수준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주장의 두 번째 부분이다. 만일 이들의 이론적 주장이 옳다면 두 국가의 피험자들의 자기평가는 그들의 원문화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며 상황적 조건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점화된 문화에 따라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였다. 즉, 미국피험자들도 주어진 상황에서 점화된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서 사고를 하고 제단을 한다는 문화의 가변적 영향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

적 배경의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행동수준에서는 Heine과 Hamamura(2007)나 Kitayama와 Uchida(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동기수준에서는 이들의 이론적 해석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논거가 된다. 또한 서론에서 밝혔듯이 자기평가의 표현은 같다고 하더라도 문화에 따른 특수한 대인적 변인(예 : 사회적 관계에서의 대인접촉 정도의 예측)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근거한 다양한 변인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한다.

자기고양편향과 비판편향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자기평가의 비교 문화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빈번하게 사용된 일본인들의 자기비판편향과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자기비판편향이 많이 나타났는데 반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자기고양 경향성이 종종 보고되었다(이누미야 요시유키 등, 1999; 조궁호, 2002; 조궁호, 명정환, 2001). 그런데 한국인들의 자기고양경향성을 설명하는데 이누미야 요시유키 등(1999)은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일본인보다 자기고양편향이 높게 나왔을 것이라는 원문화의 영향을 기초로 하는 해석을 한다. 이 해석은 문화의 고정적 영향을 보는 면에서 Heine(2001)과 Hein과 Hamamura(2007)의 주장과 일치한다. 반면 조궁호(2002)는 한국인들의 원문화인 집단주의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특성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자기고양을 보여준다는 소위 ‘문화우월특성’ 가설을 통해 설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자기평가가 덜 긍정적이지만 문화의 점화에 따라 자기평가가 달라졌다. 이것은 가변적 점화조건에서 연상되는 문화적 가치들에 일관되는 자기평가를 함으로서 자기평가의 특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화가치를 내재화하여 나타난다는 조궁호(2002)의 최근 입장과 좀 더 일치한다. 따라서 자기평가에 대해 문화적 자기 관점을 지닌 Heine이나 Kitayama 등의 연구가 문화는 고정적인 불변의 변인으로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결정론적인 관점을 택했다면, 본 연구는 최근의 문화심리학연구의 추세에 맞춰 문화가 가변적이며 개인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 심리적으로 준거점을 두는지가 변할 수 있고 어떤 문화의 틀이 점화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평가

행동에 초점을 두어 밝혔다.

문화심리학의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점화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Hong 등(2000)과 Hong과 Mallorie(2004)의 문화의 역동적 구성이론이 자기평가 행동에도 타당함을 의미한다. 자기평가행동과 문화의 관계성이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자기평가는 기존 서구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가치에 대한 표현행동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동기 경향성이 문화보편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비교문화심리학 연구들은 문화 특수적인 것이라는 증거들을 내놓고 있지만(Heine & Hamamura, 2007),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상황적 변인에 대하여 더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자기긍정성 동기의 보편성과 그 동기가 외현되는 데 일어나는 문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유익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문화의 점화방식을 응용하여 검증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상황적인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자기겸양과 자기비판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점화된 문화에 따라 자기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밝힘으로서 상황적 변수의 고려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주지하였으나 동시에 한국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자기평가가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또한 보였다. 이 점은 현재 자기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평가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보다 명확한 개념적 구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지한다. 이론적 개괄에 소개한 자기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행된 연구들로서 동양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는 겸양에 대한 개념적 함의 없이 유사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자기평가 연구에서 흔히 혼용되는 자기겸양(self-modesty), 자기비판(self-criticism), 자기평혜(self-effacement) 등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자기평가를 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Heine과 Hamamura(2007)가 보고한 일련의 연구들은 주로 캐나다인과 일본인을 비교했

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자기 비판적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본의 문화적 특성인 자기수양에 강조를 두었다. 즉, 평생을 두고 자기수양(self-cultivation)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받아 일본인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스스로를 덜 긍정적으로 보거나 겸양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일본문화에 대한 해석(Doi, 1981)을 하였다. 한국 연구의 경우 특히 이누미야 요시유키 등(1999)과 조공호의 초기 연구(조공호, 김소연, 1998)는 자기겸양편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개념이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자기비판경향이나 자기평해경향 등에 비해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중간보다 낮은 부정적인 의미인지 한국 사람들이 서구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자기를 보거나 표현하는 것인지(Kim et al., 2003) 혹은 실제로 일본인들처럼 자기수양에 대한 강박적 사회가치로 인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자기비판(self-criticism)의 측면도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의 발견은 분명히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덜 긍정적으로 자기평가를 하고 집단주의가 반영되는 관계적 자기로 문화점화를 하는 경우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모두 자기평가가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자기평가의 수준은 부정적 자기평가라고 하기에는 중앙치에 가까웠다. 최근 Kim 등(2007)의 연구에서도 가상적 자기표현의 상황에서 한국의 피험자들이 사회적 관계의 지속기간과 대인적 접촉의 밀집도에 따라 자기평가가 달라졌음을 발견했으나 여전히 자기평가가 이전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자기비판이나 자기평해의 정도는 아니었다.

이점에서 최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2006)가 제안한 주체적-대상적 자기(subjective-objective self) 가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한국인의 자기관이 자신을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주체적 자기(subjective self)이며 일본인의 자기관은 자기를 사회의 영향을 수용하는 존재로 보는 대상적 자기(objective self)라고 제안한다. 대상적 자기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 수용되기 위하여 기대와 규범 가치관을 간파하여 자신이 결여하고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 속성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비판적 경

향성이 발달하게 된다. 즉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긍정적으로 자기를 보려는 동기가 있음에도 낮추고자 하는 겸양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수용되기 위하여 자기비판의 가치를 발달시키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가설은 자기고양이 일본인들에서 결여되어 있지만 한국인들에게서는 여전히 나타나며 동아시아 내에서 수행된 자기평가의 연구들에서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데 대한 좀 더 개연성 있는 설명이다. 또한 조공호(2003) 및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김윤주(2006)의 주장이나 본 연구 모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자기평가 비교문화연구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을 비판하는 점에서는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러나 현재 자기평가와 관련한 여러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됨으로서 문화에 따른 자기평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장애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자기평가의 연구에서 문화와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명확한 개념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제한점 및 결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무점화 실험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문화점화 기법이 일관적으로 효과가 있었고(Brewer & Gardner, 1996), 둘째로 제한된 숫자의 표본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 두 국가 간 비교를 하였기 때문에 각 실험조건별 피험자 숫자가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어서 무점화 실험 조건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원문화와 점화된 문화가 일치되는 경우 자기평가가 양 방향으로 증폭되어 나타났고 원문화와 점화된 문화가 충돌하는 경우 자기평가의 수준이 중간정도에서 나타났다. 자기평가가 중간정도로 나오는 경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자기평가에 영향을 주는 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후의 연구에는 무점화 조건의 설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가치를 갖는다. 첫째, 비록 본 연구는 문화의 점화에 따라 자기평가행동이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한 점에서 문화구성주의 이론을 지지하였으며, 둘째, 자기평가 행동에 주로 초점을 두었지만 문화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점화기법이 앞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효용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 고 문 헌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1), 183-202.
- 조궁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경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궁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조궁호, 김소연 (1998). 겸양 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조궁호, 명정환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Allport, G. W. (1955). *Becoming*.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 (1993). Understanding the inner nature of low self-esteem : Uncertain, fragile, protective, and conflicted.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201-218). New York : Plenum Press.
- Biernat, M., Manis, M., & Nelson, T. E. (1991). Stereotypes and standards of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85-499.
- Brewer, M. B., & Gardner, W. (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 83-93.
- Brown, J. D., Kobayashi, C. (2003). Motivation and manifestation : Cross-cultural expression of the self-enhancement motiv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1), 85-88.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 Doi, T. (1981). *The anatomy of dependence. The key analysis of Japanese behavior*. Tokyo : Kodansha International.
- Farh, J., Dobbins, G., & Cheng, B. D. (1991). Cultural relativity in action : A comparison of self-ratings made by Chinese and US workers. *Personnel Psychology*, 44, 129-147.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 Culture, dissonance, and self-affi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89-400.
- Heine, S. J. (2001). Self as cultural product : An examination of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69(6), 881-906.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eine, S. J., Lehman, D. R., Peng, K., & Greenholtz, J. (2002). What's wrong with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subjective Likert scales? : The reference-group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903-918.
-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1), 4-27.
- Hong, Y., & Mallorie, L. M. (2004). A dynamic constructionist approach to culture : Lessons learned from personality psycholog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 59-67.
- Hong, Y., Benet-Martinez, V., Chiu, C., & Morris, M. W. (2003). Boundaries of cultural influence : Construct activation as a mechanism for cultural differences i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453-464.
- Hong, Y., Morris, M. W., Chiu, C., & Benet-Martinez,

- V. (2000). Multicultural minds :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 Hong, Y., Wan, C., No, S., & Chiu, C. (2007). Multicultural identities. In D. Cohen & S. Kitayama(Eds), *The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New York : Guilford.
- Kashima, Y. (2001). Culture and social cognition :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cultural dynamics. In D. Matsumoto(Ed.), *Handbook of culture and psychology*(pp.325-36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 S., Gim, W-S., & Lee, S-S. (2007). Culture and self-presentation : Influence of the opportunities of social interactions in an expected social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7th Biannual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July, Kota Kinabalu, Malaysia.
- Kim, J., Kim, M-S., Kam, K. Y., & Shin, H-C. (2003). Influence of self-construals on the perception of different self-presentation styles in Korea.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89-101.
- Kitayama, S., & Uchida, Y. (1999). Implicit self-attachment as sympathy to the self : Japanese constructions of the self. *Paper presented at the 3rd Biannual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Taipei, Taiwan.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depreciation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245-1267.
- Kobayashi, C., & Brown, J. D. (2003). Self-esteem and self-enhancement in Japan and Americ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5), 567-580.
- Kobayashi, C., & Greenwald, A. G. (2003). Implicit-explicit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for Americans and Japanes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22-541.
- Kurman, J. (2001). Self-enhancement : Is it restricted to individual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705-1716.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Matsumoto, D. (1999). Culture and self : An empirical assessment of Markus and Kitayama's theory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289-310.
- Muramoto, Y. (2003). Indirect self-enhancement in relationship among Japanes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52-566.
- Peng, K., Nisbett, R. E., & Wong, N. Y. C. (1997). Validity problems comparing values across cultures and possible solutions. *Psychological Methods*, 2, 329-344.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1.
- Robins,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 about the self : Short-term benefit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340-352.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New York : Houghton Mifflin.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60-79.
- Sedikides, C., Gaertner, L., & Vevea, J. L. (2005). Pancultural self-enhancement reloaded : A meta-analytic reply to He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4), 539-551.
- Sedikides, C., Gregg, A. P., & Hart, C. M. (2007). The

- importance of being modest. In C. Sedikides & S. Spencer(Eds.), *The self :Frontiers in social psychology*(pp.163-184). New York, NY : Psychology Press.
- Takata, T. (2003). Self-enhancement and self-criticism in Japanese culture :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42-551.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esser, A.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1, pp.181-227). San Diego : Academic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ong, R. Y-M., & Hong, Y. (2005). Dynamic Influences of culture on cooperation in the prisoner's dilemma. *Psychological Science, 16*, 429-434.
- Xie, J. L., Roy, J. P., & Chen, Z. G. (2006). Cultur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rating behavior : An extension and refinement of the cultural relativity hypothe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7*, 341-364.

Influence of Culture Priming on Self-Rating

Jungsik Kim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Eugene Song

Hanyang University

Seongsoo Lee

Sun Moon University

Whereas previous studies on self-rating had focused on culture as a static trai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rough two experiments conducted in the U.S. and Korea if the self-rating would differ between two culture priming conditions. Experiment 1 measured the self-rating through a self-report method, whereas Experiment 2 measured the self-rating through the participants' performance in an analytic reasoning task. The results of analyses demonstrated that the self-rating varied on primed cultural situations. The results support the Dynamic Constructivist Theory of culture and provide the discussions for the question that situationally prime culture is as influential as the criteria culture on individuals' behaviors.

Keywords: Culture Priming; Self-Rating; Self-Enhancement; Self-Effacement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2월 3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2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2월 24일

부록 1 : 논리적 추론과제 예

지문 세 명의 남학생(영수, 태석, 홍기)과 세 명의 여학생(은정, 수진, 보람)이 같은 원룸건물에서 살게 되었다. 이 들 중 어떤 이는 서로 친하고 어떤 이는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이들의 방을 배치하는데 신경을 써야한다. 다음의 문제는 어떻게 방을 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조건과 질문이다. 각 방은 복도를 따라서 일렬로 배열 되어 있어서 서로 마주보지 않는다. 총 9개의 방이 있다. 한 방에는 단 한명만 살 수 있으며 두 학생이 같은 방에서 살수는 없다.

조건 조건 1 : 수진, 영수, 홍기는 맨 구석에 있는 방에는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조건 2 : 은정과 수진은 사이가 나빠서 옆방에서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조건 3 : 보람이는 태석이와 홍기의 집에 바로 붙은 방에서 살고 싶어 한다.
조건 4 : 수진이와 홍기의 방 사이에는 빈방이 있다.
조건 5 : 여학생들은 절대로 바로 옆방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조건 6. 영수의 방은 복도에서 맨 끝이다.

1. 몇 명이 빈방의 바로 옆에 위치한 방에 살게 되는가?

- A. 2 B. 3 C. 4 D. 5

2.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제 1. 수진이의 방은 은정과 홍기의 방 사이에 있다.
2. 아무도 안사는 방 옆에 위치한 방에 사는 사람은 최대 4명이다.
3. 영수와 태석이는 옆방에 산다.

A. 1 번만 맞다
B. 2 번만 맞다.
C. 1 번과 3 번만 맞다.
D. 모두 맞다.
